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 복음기도신문



## 법원, 극동방송에 대해 편파적인 방통위 차별 지지

### 종교방송의 특수성 인정 안해 “논란”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극동방송이 기독교 전문가들의 차별금지법 폐해 발언을 방송했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는 법적 소송에서도 패해, 관련 기관들에서 방송법에 보장된 종교방송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극동방송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송을 내보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고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방통위는 2020년 11월 9일, “극동방송 프로그램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진단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하면서 모든 출연자가 차별금지법 안에 반대하는 입장만을 전달했다. 또 법안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한 것은 심의규정(공정성·객관성

조항) 위반”이라며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고, 방통위는 12월 1일 극동방송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규정한 방송법 제6조에 따르면,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 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의 범위에서 방송할 경우, 방송편성에서 성별, 연령, 종교, 신념 등에서 특수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극동방송은 태생이 성경에 기초한 교리를 전파하고 찬양하도록 허가를 받은 전문 방송사업자다. 따라서 최근 아직 제정도 되지 않았으며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위헌성과 폐해를 방송출연진들이 발언했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을 내린 것은 이러한 종교방송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방송법 제재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100조에 따르면, 방통위는 음란,

퇴폐 및 폭력 등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공중파나 유선방송에서 동성애나 성전환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의 임신을 부추기는 내용이 버젓이 방송되고 있음에도 방통위는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주의나 수정, 중지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다는 발표를 접한 바가 없다.

현행 방송법 33조(심의규정)에 따르면, 방통위는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 양성평등,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극동방송은 이번 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GN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김동민 집사 (참종 앳더라교회, YTN 보도국 부국장)

## “하나님 나라의 기자가 되고 싶은 주의 종입니다”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 언론인으로 살며 교회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그러나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지금은 하나님을 만난 은혜를 나누며 하루하루 살

고 있다.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며 보게 된 믿음의 저자들이 남겨 놓은 책을 요약,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다. 하나님을 나누는 기쁨도 누리고 있

는 김동민 집사의 회심기와 직업 현장에서 누리는 은혜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 4면에 계속



### 마음의 눈을 밝히사 (64)

## 복음을 살아내게 하시는 성령님

누군가 ‘성령님은 위대한 장의사’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 죽음의 자리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 각합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사역이나 봉사를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서로 굴복이 불가능한 완전히 십자가로 딱 갈라

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옛 생명을 죽음으로 인도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옛 자아의 생명을 십자가의 죽음에 완벽하게 적용시켜서 거기 붙들어두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새 생명을 충만하게 살아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은 오직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능히 살려내셔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복음을 살아내게 하십니다.

복음의 진리 되신 십자가를 이뤄내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는 것이 십자가의 외침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살아



일러스트=김경선

내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복음의 삶 자체가 너무 높은 차원이라서 성령이 아니고는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친히 하신다는 진리가 결론이 되어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야만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 하리라”(갈라디아서 5:16)

[GNPNEWS]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김용의.규장.2017)에서 발췌

## 복음의 소리 316전화

복음이 뭔지 궁금하신가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1670-3160

운영시간: 10시-22시  
상담시간: 40분

장난 전화는 삼가주세요



# 죄 사함은 고행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구속으로만



▲ 네팔 신전의 사두. 제공: WMM

**네팔 신전**에서는 힌두교 사두(Sadhu, 수행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사두는 힌두교 신자 중 성자(聖者)로, 사리사욕을 버리고 힌두의 가르침을 따라 이승의 죄를 씻기 위해 평생을 수행하며 산다. 무소유를 실행하며 옷 한 벌, 담요 한 장, 밥그릇 하나로 평생 성지를 순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고행으로 죄가 씻어지는 건 아니다. 죄 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

가 구속으로만 가능하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골 1:14) 또 네팔 힌두교인들은 동물을 숭배한다. 5일 동안 진행되는 힌두교 축제 타하르는 첫째 날은 까마귀, 둘째 날은 개, 셋째 날은 소를 숭배하는 의식을 진행한다. 이들은 소의 꼬리를 씻은 물을 마시기도 하는데, 소는 부, 재산 및 번영의 힌두교 여신인 락슈미의 화신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부와 번영은 소꼬리 씻은 물을

마실 때 오지 않는다. 이것은 오직 주께로 말미암는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대상 29:12) 죄 사함을 위한 고된 수행도, 번영을 위한 헛된 우상도 모두 버리고 구원자이시며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GNPNEWS]

## 개신교인 34% “다른 종교에도 구원 있다”

교회 출석자 4명 중 1명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2022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개신교인의 34%가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 중 교회 출석자의 25%가, 교회 미출석자의 62%가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타 종교의 가르침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개신교인의 56%가 “있다”고 답했으며, 이 중 교회 출석자의 48%, 미출석자의 80%가 타 종교의 가르침에 진리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낙태 문제에 관해 ‘여성의 결정권이 중요한지’, ‘태아의 생명이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개신교인의 59%가 여성의 결정권이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태아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입장은 41%에 불과했다.

반면 비개신교인의 77%가 여성의 결정권이, 23%가 태아의 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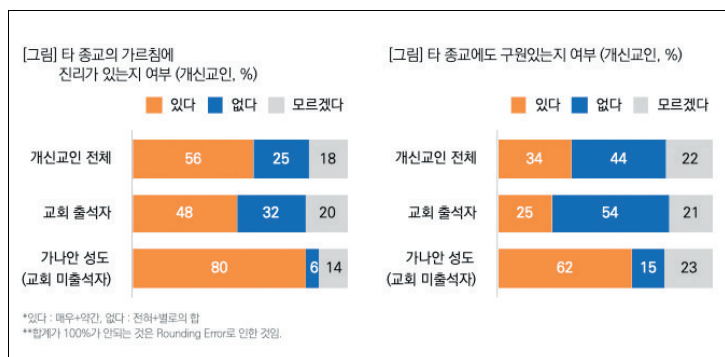
또한 동성 간 결혼에 대해서는 개신교인의 80%가 반대, 20%가 찬성 의견을 냈다. 반면 비개신교인은 58%가 반대, 42%가 찬성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지난해 11월 15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남녀 1000명과 비개신교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인식을 직접적으로 비교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생각은 종교다원주의로, ‘다양한 구원의 길이 종교 상징체계가 존재하며, 따라서 특정 신의 이름

과 구원의 방도가 배타적인 우월성을 지녔다는 주장은 용납될 수 없다.’는 종교 신학적 이론이다.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단체는 세계교회협의회(WCC)로, WCC는 제 3차 뉴델리 총회(1961)때부터 타 종교에 대한 부정적이고도 배타주의적인 입장과 전격 결별하기 시작했다. 뉴델리 총회는 타 종교를 ‘다른 신앙’으로 표현하고, ‘다른 신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GNPNEWS]



▲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한국 기독교인 4명 중 1명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자라고 밝혔다. 출처: 목회데이터연구소 넘버즈 184호

##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궐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 美 종교교, 펜타닐 대량 유통... 알약 복용 후 10대 3명 사망

미국 텍사스주 플레이노시 지역에서 마약 중 하나인 펜타닐이 약국 처방 알약 모양으로 중·고교 내에서 대량 유통돼, 최근 6개월 사이 이를 복용한 청소년 3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은 응급 치료를 받고 고비를 넘겼다고 지난 17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마약상 3명이 피트린 이 알약은 약국에서 처방되는 진통제와 똑같은 모양이어서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없었다고 사망한 학생들의 부모들이 토로했다.

알약 모양으로 다음세대에게까지 뻗어간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잠깐의 쾌락을 위해 영혼이 파괴되는 줄도 모르고 마약에 빠뜨리는 영혼들에게 영원한 참 만족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주께로 돌이키는 은혜를 베풀어주소서.

### 이탈리아, 동성 커플 대리모 통해 해외 출산... 소아성애보다 심각

대리모가 불법인 이탈리아에서 많은 동성애 커플이 대리모가 합법인 국가에서 해외 출산을 시도하는 가운데, 페데리코 몰리코네 하원 문화위원장이 돈을 주고 대리모를 구하는 행위는 “소아성애보다 더 심각한 범죄”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첼라 장관은 “대리모가 합법인 국가에서는 그 자체가 거대한 산업이 됐으며 대리모는 곧 어린이 시장”이라고 지적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그 속에서 자녀를 낳고 기르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자들의 대리모 출산이 죄인줄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탈리아의 영혼들이 주님의 진리의 빛 앞으로 돌아와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 한교연, ‘한반도 내 유일 합법 정부 대한민국’ 통일교육 지침서 환영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이 최근 발간된 통일교육 지침서에 ‘한반도 내의 유일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 부활하고, 북한의 핵 개발을 감정은 정권의 독재 유지수단으로 인식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교연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내의 유일 합법 정부란 것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우리의 국가 기조이자 정체성”이라고 강조했다.

주님, 전쟁과 학살과 고통의 땅에서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자유와 번영과 성장의 땅이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국의 올바른 역사 인식과 올바른 통일 교육이 이뤄져 이 땅의 다음세대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옳게 분별하여 이 땅과, 열방을 섬기는 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GNPNEWS]

##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3년 4월 3일 ~ 2023년 4월 22일

- 4월 3일 ~ 4월 8일** ▶강원 춘천 / 춘천중부교회(김\*\*)010-4612-7249, ▶경북 문경 / 순회선교단 한국본부(정\*\*)010-9440-4365, ▶전남 광주 / 광주예수마리아교회(박\*\*)010-2330-5849, 4.3-7(11-17시)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4.3-8(10-20시) ▶서울 광진 / 빛과소금선교회(권\*\*)010-7754-1726, 4.4(10-12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이\*\*)010-5006-5529, 4.4-6(13-17시) ▶강원 고성 / 가마골교회(홍\*\*)010-3191-8622, 4.6(20-22시) ▶충남 서산 / 선한목자교회(최\*\*)010-4828-3408, 그 외 12교회 진행중.

- 4월 10일 ~ 4월 15일** 4.10~15(05-22시) ▶전남 담양 / 물뎀동산교회(조\*\*)010-6429-7027, 4.11(10-12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이\*\*)010-5006-5529, 4.12(11-15시) ▶경기 부천 / 어울림교회(박\*\*)010-2664-6936, 4.12,14(11-17시) ▶경기 광주 / 창대교회(김\*\*)010-4715-3727, 4.13(20-22시) ▶충남 서산 / 선한목자교회(최\*\*)010-4828-3408, 4.15(10-17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그 외 8교회 진행중.

- 4월 17일 ~ 4월 22일** ▶경남 통영 / 두미교회(이\*\*)010-4734-8567, 4.17~22(11-17시)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4.18(10~12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이\*\*)010-5006-5529, 4.19~21(10-17시) ▶강원 속초 / 동명교회(최\*\*)010-8378-1273, 4.19(11-15시) ▶경기 부천 / 어울림교회(박\*\*)010-2664-6936, 4.20(00-24시) ▶경기 파주 / 갈릴리교회(이\*\*)010-3869-3417, 그 외 9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8267-4365)

# 이슬람의 성장은 교회의 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 이슬람교의 탄생과 성장

AD 7세기 초,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한 아랍인에 의해 시작된 이슬람교는 지금 전 세계 인구 4명 중 1명이 믿는 종교로 급성장했다. 오늘날, 중동 아랍 민족에 의해 시작된 이슬람교는 그 평가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들의 사회와 문화, 그리고 정치와 외교의 중심에서 가장 중추적 임무를 수행해 왔다. 이는 전형적인 종교를 뛰어넘어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의미하며, 중동 사회 안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질서이며, 철학적이고 경제 원리이며, 동시에 통치 수단으로 존재한다.

이슬람교가 시작되고, 성장했던 그 땅은 공교롭게도 기독교가 왕성했던 땅과 매우 가깝게 맞닿아 있다. 먼저, 기독교 초대 교부 시대 다섯 개의 신학센터 중 로마를 제외하고 나머지 네 곳, 즉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예루살렘이 모두 이슬람교의 발생 지역 인근이다. 또한, 당시 교회사에서 기독교 교리를 포함한 중요한 모든 회의가 개최된 곳이며, 이교도를 향한 반박을 주도했던 주교와 학자 대부분이 중동 출신이다. 아울러, 초기 기독교 도서관과 모든 종류의 성경과 신학 관련 작품들로 가득했던 곳이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으로 열매가 가득한 결과로 교회가 세워졌던 땅이 바로 그 지역이다.

이슬람교를 믿는 신자(무슬림)들의 성장에 대해서는 크게 설립 초기 원인과 최근 원인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 이슬람교의 초기 성장 원인

초기 이슬람교의 성장은 당시 기독교가 가진 문제점과 무관하지 않다. 즉 기독교의 토착화가 미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모국어로 된 성경의 보급이 아직 미비했을 때, 당시 각 나라말로 성경을 번역



▲ 중동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셰이크 자이드' 모스크. 출처: Pixabay

하는 것을 금지한 상황에서 오직 기독교 사제들에 의해 라틴어 성경만이 사용되고 있었을 때, 당시 위대한 기독교 신학자들의 불필요한 소모적 신학 논쟁으로 복음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을 때, 그리고 당시 비잔틴 제국 관리들이 할당 받은 조세를 걷기 위해 국민을 착취하고 있을 때 당시 국경에 인접한 이슬람교는 타 종교에 대해 관용적인 것처럼 보이며 많은 비아랍인조차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 이슬람교의 최근 성장 원인

최근 이슬람교가 급성장한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도 출산율에 따른 인구의 자연적 증가이며, 아프리카와 인도네시아 등에서의 이슬람교로의 높은 개종률도 작은 원인이 절대 아니다. 지금 아시아 인구의 거의 삼분의 이(2/3)가 무슬림이다. 게다가 지금 무슬림들의 유럽, 북미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은 선진국으로의 취업과 이민을 통한 이주 성장도 무시할 수 없으며, 오일 머니를 사용한 아랍 무슬림들이 무슬림세계연맹이나 이슬람기금재단을 운영하여 이슬람

교의 포교에 혈안이 되어 있다. 또한 개신교 선교사들보다도 더 많은 무슬림 전문인이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적극적인 이슬람의 포교자로 살아가는 것도 이슬람의 성장 원인으로 본다.

### 지금 지구촌 미전도 종족 대부분은 무슬림 국가

미국의 선교전략가 루이스 부시는 세계 지도에서 북위 10도에서 북위 40도 사이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전도 종족이 밀집되어 있다고 말한다. 아래의 미전도 지역 12권역을 보면, '10/40' 창안 대부분이 무슬림들이 살아가는 이슬람국가이다. 더군다나, '기도24·365'에 따르면, 전 세계 40만 기독교 선교사 중 고작 3.3%만이 이 '미전도 종족'에 집중하고 있는 불균형을 보인다.

### 이슬람의 성장과 교회 선교의 둔화

2007년, 국민일보에 한국컴퓨터 선교회가 인터넷을 통해 한 달 동안 해외 선교사 80명과 전국 기독교인 608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교회 성도의 선교 의식구조' 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가운데, '교회에서 선교가 잘 이뤄지지 않는 원인'으로 관심 부족(67%)이 가장 높게 나왔다.

이 조사에서, 교회 성도들의 선교 헌금에 대한 횡수를 보면, '매월 한다.'(60%), '가끔 한다.'(28%), '매주 한다.'(6%), '하지 않는다.'(4%), 기타(2%)로 나왔다. 또, 선교를 위한 기도 시간에 대해서는 '매일 한다.'(35%), '생각날 때만 한다.'(35%), '정해진 시간에 한다.'(16%), '교회에서 함께 기도할 때만 한다.'(13%), '하지 않는다.'(1%) 순으로 나왔다.

이제 현대 선교는 '팀 선교'라고 얘기하고 있듯이 '보내는 자(Sending Body)'와 '보냄을 받은 자(Going Body)'가 하나가 되어 일해야 하는 시대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보내는 자'로서의 한국교회와 성도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선교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재정과 기도, 그리고 관심을 통해 함께 일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선교사를 돕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팀으로 함께 선교하고 있다는 의식은 아직 보편적이지 않다.

이슬람권 선교를 위해 한국교회

“  
모든 교회는  
잃어버린 자,  
소외된 자,  
고난 겪는 자,  
버림받은 자를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내야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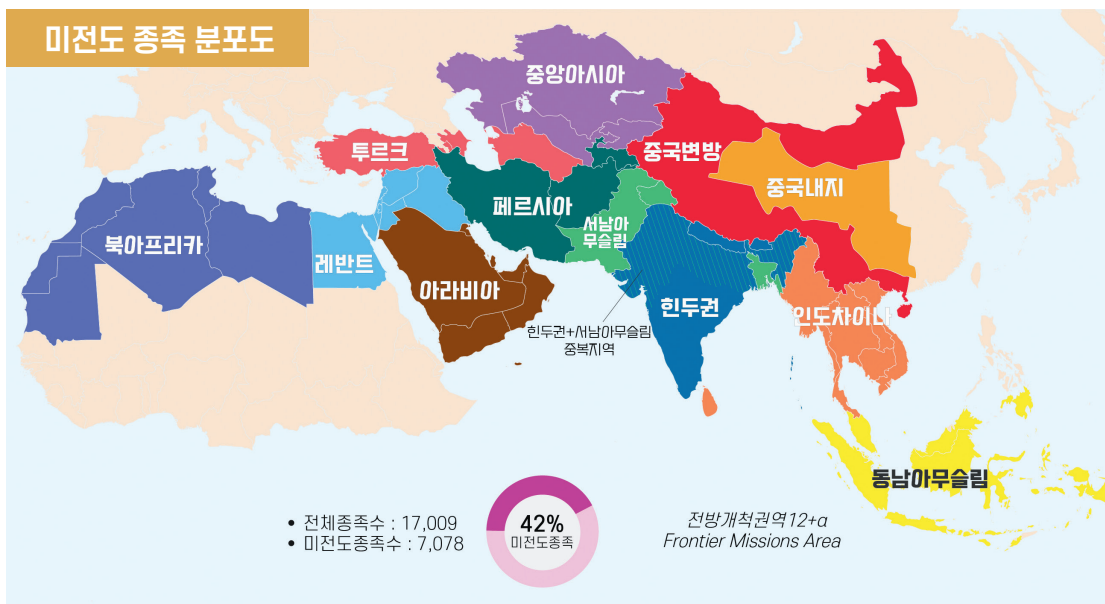
가 가진 또 다른 문제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세가 매우 부족하다. 이런 인내는 한국교회와 선교사 양쪽 모두에게 필요한 부분이다. 어떤 결과를 얻어 내고자 절대 성급해서는 안 되며, 인내하면서 현지 기독교인들의 영적인 열매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 한국교회의 선교적 역할

한국교회는 선교적 관점에 비추어 볼 때 세계의 다른 교회가 갖지 않은 선교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세계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문제점도 있다. 그것은 바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교회를 빨리 효과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까?'에만 치중해 왔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70~80년대를 거치면서 놀라운 속도로 교회 성장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과 소명을 묻는 근본적 질문인, '교회란 무엇인가?'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왔다.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도 '어떻게 효과적이며 성공적으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을까?'가 주요 관심사가 되어 왔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잃어버린 자, 소외된 자, 고난 겪는 자, 그리고 버림받은 자를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이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선교에 임하는 교회들을 통해 지금까지 수많은 무슬림이 새 생명을 찾았으며, 반대로 이런 모습 없이, 이만큼 존재하는 교회들로부터 이슬람은 성장해 나갔다. [GNPNEWS]



김종일 교수  
(아신대학교(ACTS)  
중동연구원)





삶의 풍경을 통해 본 하나님의 은혜

## 날마다 예수님을 기뻐하는

### 김동민 집사 (참좋은교회.YTN 보도국 부국장)



#### • 1면에 이어

자전적 회심기 '사랑하면 행복한다'(2019년)를 출간한 김 집사는 저자 소개란을 통해 '중고등학교 6년간 교회를 다니다 고려대 입학과 함께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겠다며 교회를 떠났다가 아버지의 암 투병기간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사귀기 시작한 용서받은 죄인, 방송기자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하늘의 일을 옮겨 적는 하나님 나라의 기자가 되고 싶은 주의 종'으로 자신을 소개했다.

- 그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네요.

“저는 1995년도에 YTN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 지금까지 일하고 있어요.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많이 접하게 되고 또, 교회 관련 사건들을 여럿 보게 되면서 대형교회에 대한 안 좋은 시각을 갖고 있었어요. 사실, 똑같은 잘못을 해도 다른 종교인보다 목사님이 잘못된 것은 기삿거리가 됐어요. 아내는 대형교회에 다니고 있었고, 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한두 번 교회에 가 준 정도였어요. 그러다 하루는 아내가 개척교회로 옮겼다고 하더군요. 그 교회의 성도는 고작 10여 명이었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목사님은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지도 않았어요. 제 고정관념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교회에 젖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아버지가 암 판정을 받으시면서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 개척교회 통해 대형교회에 대한 부정적 선입관 깨져

- 가정의 위기의 순간 앞에서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셨군요.

“응급실에서 의사가 장례 준비를 하라더군요. 새벽에 아내와 병원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마음이 평안했어요.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병원에 먼저 도착한 형에게 “주님이 내 마음을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걸 보니 아버지가 안 돌아가실 건가 봐.”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의식도 없는 상태였어요. 형은 “만약 아버지가 일어나시면 너 따라 교회 간다.”고 말했어요. 아버

지는 며칠 있다가 깨어나셨고, 형은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비록 지금은 장기결석자가 됐지만요. 이 시간을 겪으며 처음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강력하게 마음 안에서 말씀해주신다는 사실이었어요.”

-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궁금하네요.

“아버지가 회복되셨지만, 시간이 지나고 쇠약해지시면서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문제가 생겼어요. 형제들이 각자 자기 집 근처로 모시겠다고 주장했어요. 저도 당연히 교회도 모시고 가야 하고 목사님도 만나야 하니까 저희 집 근처로 모셔야 된다고 했어요. 물론 행복한 다툼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답을 어떻게 얻었어요. 하나님께 여쭙보기로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버지에게 물어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곧바로 아버지에게 물어봤더니, 막내인 저희 집 근처로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상황이 정리됐어요.”

- 그 뒤에 아버지도 신앙을 갖게 되셨나요?

“아버지는 집 근처 요양병원에서 1년을 더 사셨어요. 손자, 손녀들하고 그림도 같이 그리며 놀아주시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셨어요. 아버지는 2011년 9월, 교회에 새신자 등록을 하시고, 10월 28일에 병상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의사가 살 수 있다고 말한 기한은 이미 넘긴 때였어요. 이후 기력이 쇠해지시고 말을 못하실 때였는데, 웅얼웅얼하시다가도 ‘하나님’이란 말씀은 정확히 하셨어요. 아버지는 아마도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사랑해라.’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또 목사님이라는 말도 명확하게 발음 하셨어요. 아버지는 목사님에게 늘 많이 고마워하셨거든요. 그리고 평안히 주님 품에 안기셨어요.”

- 개인적인 삶의 변화에 대해서도 들려주세요.

“하나님을 만나서 저는 너무 좋은데, 회사만 오면 전쟁터 같았어요. 회심하고 첫 3~4년은 좌충우돌하는 시간이었어요. 믿음을 분명히 가졌는데, 회사만 가면 힘들었습니다. 회사에서 가장 미운 선후배들

이 바로 좌우에 있고 앞에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업무 관련된 이야기 한두 마디밖에 하지 않았어요. 사실 회사 가기가 엄청 싫었어요. 회사 정문을 통과하면서 얼굴이 굳어지고 퇴근과 동시에 얼굴이 퍼졌어요. 아내는 제가 회사 갈 때는 예수님을 빼놓고 들어가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믿음이 있는데 회사에서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믿음이 있으면 꽃길만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에게 드리니까 목사님은 웃기만 하셨어요. 잘 가고 있는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 신앙생활하며 내가 죽는다는 하늘의 비밀을 경험하기 시작

- 어떻게 해결이 되셨나요?

“그때 마침, 교회 설교를 통해 ‘용서하라.’는 말씀을 듣게 됐어요. 교회에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말도 잘 하지 않는 동료들 불러다가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했어요. 나를 왜 그렇게 미워하냐고 물었더니 다 이유가 있더군요. 지금은 미운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런 식으로 내가 죽고 나니까 회사 다니기가 편해지더군요.”

- 죽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게 거대한 삶이라고 여겼어요. 가치가 바뀌었니까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가장 기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실재가 안 됐잖아요. 그때는 나의 옛 생명이 십자가에서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몰랐어요. 회사에서 힘든 시간을 보낼 때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생각보다 말씀과 내 실제 삶과 다르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만 했어요. 용서를 하려면 자존심을 버려야 했어요. 억울했지만, 자존심을 부리는 건 믿음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잘 몰랐지만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나중에서야 아, 이게 십자가에서 죽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신 거군요. 회심 이후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회사 생활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힘들어 했던 이유는 제 문제였지,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다음부터는 어떤 사람과 일해도 힘들지 않게 잘 지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 멘탈이 좋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또 제가 스마트하다는 평가도 받곤 했는데, 그것은 제 생각을 쥐어 짜내서 일하

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을 따라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난 뒤, 알량한 내 생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일을 하려고 하니, 제게는 신선한 아이디어가 많이 떠올랐어요. 무엇이든지 모르면 하나님께 물어보면 됐어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면, 제가 곧잘 발탁되곤 했어요. 일단 제 생각으로 하지 않고, 막히면 막히는 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회사에서 스포츠부장, 유튜브 페이스북 구글 포털 등을 총괄하는 디지털센터 본부장으로도 일했고, 시청자센터장으로도 일하게 됐습니다. 그때 한 미디어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어요. 연봉은 2~3배였고, 임원으로 오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사장 자리였죠. 그러나 믿음의 아내와 상의하고 내린 결론은 가지 않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그 회사에 가면 일벌레가 될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아내는 제가 거기 가면 그 일에 올인할 것 같은데 그럼 믿음이 떨어질 것 같다고 이야기했죠. 돈을 많이 벌어도 몸이 상하고 무엇보다 영혼이 상하게 된다면 그것이 치명적이라는 것을 아내가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거죠.”

- 회사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을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계신가요?

“제가 스포츠부장을 하고 있을 때, 한 유명그룹의 계열사 임원과 함께하는 오찬 모임에 참석했어요. 그때 돌아가면서 건배사를 했어요. 보통 ‘0000회사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외치며 술을 마시죠. 제 차례가 왔어요. “저는 예수님을 닮고 싶은 스포츠부장 김동민입니다. 제 주인의 눈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이 제 꿈입니다.”를 외치고 음료수를 마셨어요. 공식적인 자리일수록 더 믿음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건배사를 한 이후, 제 마음에는 강물 같은 평화가 밀려왔어요. 예수님의 선물이었죠.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일수록 술을 거부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그다음부터는 너무 쉬웠어요. 지키시는 하나님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리를 통해, 제게는 예수님이 최고라는 단 하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물 같은 평화, 평안을 많은 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 공식 모임일수록 예수님 자랑하며 분위기 싸하게 만들기

- 지금 ‘나의 사랑하는 책TV’라는

유튜브 방송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나요?

“믿음의 책에 대한 유튜브 동영상은 운전하는 차 안에서 아내와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영 시원찮았습니다. 제가 혼자 투덜거렸죠. ‘아니, 저렇게 멋진 책을 저렇게밖에 소개 못해? 저 책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데!’ 그러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직접 만들어 봐. 방송국 다니니까 다 할 줄 알 거잖아’ 아내의 그 말로 제가 정말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신앙에 도움이 되는 믿음의 고전들을 읽고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죠. 유튜브 방송 원고를 쓰는 시간도 예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는 시간이지요.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올해 4년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로역정은 어떤 책이지?’ 하고 유튜브에서 천로역정을 검색하면 그 책은 이런 책이라고 실제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잘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채널을 만든 취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책을 읽고 나눌수록 그 동영상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저를 바꾸시고 제 믿음을 지키게 해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읽고 소개하는 믿음의 고전들과 주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설교말씀은 늘 연관이 됩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죠. 아니, 어떨 때는 몇 백년 전 책과 설교 표현이 똑같은 때도 있습니다. 책을 보고 설교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복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메시지가 똑같은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 시작할 때 새로운 표현으로 전하려고 하는 것에 힘을 많이 썼지만 갈수록 복음의 정수만을 단순하게 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몰라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 설명이 부족해서 복음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단어 하나, 문장 하나로도 주님은 그 사람을 바꾸신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 인터뷰하는 동영상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 목사님과만 그런 인터뷰 영상을 만들었는데 평신도들을 상대로도 인터뷰 해보고 싶어요. 기자라는 직업을 30년 하다 보니, 사실 질문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고난도의 일이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잘 물어보면 좋은 콘텐츠가 되는 거죠. 세상에서도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기자로 잘 질문한다면 얼마나 하늘의 은혜가 더해질까 하는 기대가 생깁니다.” [GNPNEWS]

C.K.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제공: 김동민 집사

기획 | 빌리 그레함

# 배도자 낙인찍은 음모론 영상, 오역과 왜곡의 결과

## 빌리 그레함은 평생 외길 복음 전도자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미국 빌리 그레함 목사를 다원주의자로 낙인을 찍게 했던 한 인터뷰 영상에 대해 최근 극동방송이 '빌리 그레함 배도사건, 정말 사실일까?'라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진실 규명을 시도해 눈길을 끌고 있다.

빌리 그레함 목사의 신앙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한 것은 1997년 미국 파운데이션지(誌) 주관으로 진행된 로버트 솔러 당시 미국 수정교회 목사와 빌리 그레함 목사의 인터뷰 영상이다. 이 영상 인터뷰에서 그레함 목사는 "무슬림이든 불교도이든 기독교이든 불신자든 그들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그들도 우리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후, 이 영상을 본 많은 목회자와 기독교인들이 빌리 그레함 목사를 다원주의자라는 배도자로 여기게 됐다.

이에 대해 올해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 행사 주관사인 극동방송은 영문학자와 신학자 두 전문가의 해석과 함께 번역의 문제와 신학적 해석의 오류 여부는 없었는지를 추적하는 과정을 영상에 담아 소개했다.

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으며, 복음의 대상인 사람 가운데 믿는 사람이 세상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음을 인터뷰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그레함 목사의) 발언 의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이방인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을 설명한 것

또 노승빈 교수(백석대 영어과)는 솔러 목사와 그레함 목사의 인터뷰 영상 자막의 앞뒤 문맥을 감안하고 해석하면 그 의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교수는 "That they need something that they don't have and they turn to the only light that they have."의 번역문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무언가를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그들의 마음 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르심을 받은 유일한 빛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라는 문장의 의미를 부연해서 설명했다. 이 문장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는 '유일한 빛'에 대한 해석에서 '무슬림이나 불교도, 비기독교인에게는 각각 모하메드나 석가모니가, 또 자기 자신이 유일한 빛'이라고 해석할



▲ 1973년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 출처: billygraham.or.kr 캡처

논란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으로 대응하는 것은 또 다른 소모전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여겨, 여전히 절대다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했을 뿐이라는 것이 협회 측의 대응 자세였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는 인터뷰가 진행되던 당시 빌리 그레함 목사가 갑작스럽게 뇌압이 상승하면 경련이나 의식마저 혼미해지는 뇌수종을 앓고 있었다는 것이다. 즉, 인터뷰는 두 사람이 마주 본 대면 좌담이 아니라 이어폰을 통해 원격에서 들려온 질문에 대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미묘한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도였다고 협회 측은 답했다고 영상은 소

### 1분 짜리 영상으로 80년 순종의 삶을 바꿀 순 없어

특히 이 음모론 반박 영상은 "빌리 그레함 목사는 그의 평생 100년(99세에 소천)의 인생 중 80년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다."며 "1분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악의적으로 편집된 영상으로 그레함 목사의 삶을 부정하기에는 턱없이 짧다.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 영상으로 그레함 목사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깎아내릴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극동방송 측 영상 끝부분은 50년대부터 10년 주기로 복음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일관되게 강조한 그레함 목사의 발언을 소개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믿음을 요구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가장 큰 선물이다."(1952년)

"내가 좋은 인생을 살았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 때문에 천국에 갈 것이다."(1966년)

"모든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하고 역사적인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이다."(1970년)

"오늘 밤, 그리스도께로 나오세요. 그리고 그분을 마음으로 영접하시고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하세요."(1980년)

"이 나라 사람들은 생명의 근원을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결코 만족을 줄 수 없는 잘못된 양식을 쫓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199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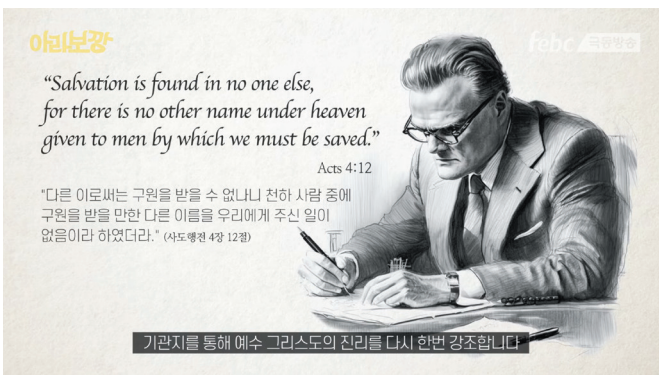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그의 권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어요. 요한복음 7장

6절은 말합니다. 그는 죄를 사하십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선지자도 죄를 사한 적이 없습니다."(2000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요 14:6)" (빌리 그레함 목사의 소천 직전 고백)

[GNPNEWS]



▲ 1981년 멕시코시티에서 복음을 전하는 빌리 그레함 목사(좌)와 유튜브 영상 '빌리 그레함 배도사건, 정말 사실일까?' 화면 캡처. 출처: billygraham.org / 유튜브 채널 극동방송 캡처



기관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강민석 목사(갈빈대 교목)는 "솔러 목사가 질문한 기독교의 미래에 대한 빌리 그레함 목사의 발언은 당시 미국 기독교의 상황과 세계 선교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는 또 예루살렘 공회가 열린 사도행전 15장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한다면 그레함 목사가 어떤 의도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목사는 "(초대교회) 당시 이방인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 시대에 이들 이방인에게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가 당시 예루살렘 공회에서 논의됐다."며 "그렇듯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 속에서 이방인을 불러내고 있음을 빌리 그레함 목사가 설명하면서 나온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즉, 무슬림 지

수 있지만, 문맥의 흐름상 이 말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조명해주시는 유일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으로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극동방송의 영상은 빌리 그레함전도협회(BEGA)에 대해 "이런 음모론의 영상에 대해 왜 빌리 그레함 목사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던진 결과, 협회 측으로부터 두 가지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첫 번째는 논란이 제기될 당시, 음모론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보다는 "우리(BEGA)는 모든 집회에서 '나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적힌 눈에 띄는 현수막을 내거는 것으로 대응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즉,

개했다. 그 증거로 "인터뷰 끝부분이 그레함 목사의 대답이 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된 것도 당시 인터뷰 진행 상황이 다소 혼란스러웠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그런 인터뷰 진행 당시의 아쉬움 때문인지 협회는 그 무렵 기관지를 통해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행 4:12)는 말씀을 강조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극동방송의 영상은 빌리 그레함 목사가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며 그는 또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이것이 진리"라고 다양한 집회 현장에서 강조했다고 밝혔다.

### 복음의 능력

### 제일 좋은 시간을 기도에 바치라

우리는 제일 좋은 시간을 기도에 바쳐야 한다. 우리의 시간과 힘에서 제일 좋은 부분을 기도에 써야 한다. 그러므로 연구나 목회 활동에 전력투구를 한 후 기도의 골방으로 가서는 안 된다. 오히려 기도의 골방에 먼저 간 후 연구나 목회 활동에 들어가야 한다. 골방의 기도는 연구와 목회 활동에 활력을 더하고 더 큰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사역에 영향을 주는 기도는 또한 삶에도 영향을 주어야 한다. 인격을 변화시키고 풍성하게 해주는 기도는 서둘러 찾는 즐거운 오락 같은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심한 통곡과 눈물(히 5:7)'처럼 기도는 마음과 삶 속으로 강력하게 파고들어야 한다. 바울의 경우처럼 기도는 영혼을 고통스러운 정도로 간절한 소원의 바다에 빠뜨려야 한다. 기도는 야고보가 가르친 '의인의 간구(약 5:16)'처럼 그 속에 불과 힘이 있어야 한다.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 강력한 영적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GNPNEWS]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E.M.바운즈)'에서 발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교회 (9)

# 당신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셨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만난 성도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 그중 첫 번째는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는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거듭난 새 생명을 주시고,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시면 우리에게는 아주 분명한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롬 14:7-9)  
십자가 복음을 만나 거듭



일러스트=이예현

난 주님을 믿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된다.  
이것은 개량된 사회를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다. 개

선된 죄인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하나님의 천국이 임한 하나님의 심령이 되는 것이다. 교회는 여기서 한 치도 물러서면 안

된다. 이 꽃대를 움직이면 타락하고 변질하게 된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바뀌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눅 9:23)

두 번째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의 마음 중심이 바뀌는 것이다. 우리의 옛 사람의 특징은 ‘오직 나, 자아 사랑, 병든 자아 사랑’이다. 이것은 나를 지독하게 사랑하며 자기를 연민하고 결국 우울증, 자살 충동으로 빠져들게 한다. 또 사람들의 인정, 평판에 전전긍긍하며 이것을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게 한다. 이는 영적인 병든 자아의 상태이며 결국은 자아숭배로 이어진다. 이 병든 자아를 해결해 준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바꾸는 가장 핵심은 이 병든 자아를 죽음으로 처리한 십자가 복음뿐이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야 한다. 사랑의 에너지는 대단하다. 사랑하면

근비치도 지치지도 아깝지도 않다. 사랑하면 그 대상과 동일시가 일어난다. 복음으로 거듭난 자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다시는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지 않게 된다. 또한 나 자신을 주께 드리고 사랑할 대상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게 된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고전 16:22)

사랑의 대상이 주님으로 바뀐 자는, 예수의 생명이 되어 자신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진리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 이것이 회복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원래의 우리의 영혼과 본성은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2018년 7월)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

## 야긴과 보아스

Jakin & Boaz

**1 투어**

- 단기선교, 아웃리치 패키지 현장 선교사 연결(아프리카, 동아시아 등) & 항공권
- 성경문화탐방 이스라엘과 파키스탄 선교사 가이드
- 신혼여행 복음기도동맹군 신혼 여행지 숙소 & 가이드 연결
- 항공권 발권 대행

**2 도서**

- 김용의 선교사 저서, 느헤미야 기도정보 순회선교단 선교관학교 & 중보기도학교 필독서
- 야긴 추천도서 50% 할인

**3 전도용품**

- 메시지 머그컵·텀블러
- 복음 마스크

문의 |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9 출간

본책 9,000원 | 긴급기도 5,500원 | 세트 72,000원

6종으로 구성된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9는 복음을 주제로 하여, 6가지의 영역을 기도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2023 긴급기도정보**

최근 열방에서 일어난 긴급한 기도제목을 담은 2023 긴급기도정보 5종이 새롭게 발간됐습니다!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9와 함께 사용하시면 됩니다.

구입문의 야긴과보아스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책임교사를 위한

## 교육백서

GPM 도서

값 8,000원

다음세대 선교사 양성을 위해 헤브론원형학교는 교육의 주체를 교사, 책임교사로 명명된 부모, 신앙의 터전인 교회와 함께 기도하며 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땅의 다음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용감하게 자신을 드러 순종하는 순종의 전문가, 용감한 정예병으로 자라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의 역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용의 선교사(순회선교사, 로그미션 대표)

“책임교사로, 교육선교사로 각각 헌신하여, 피 묻은 생명의 복음을 마을마다 동네마다, 종족마다, 나라마다 증거하고, 거짓과 탐욕, 어둠과 죽음의 영에 사로잡힌 자녀들이 주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길 기도하며 주님의 보혈로 쓴 (주홍글씨), <책임교사를 위한 교육백서>의 일독을 강추합니다.”  
장갑덕 목사(대전 카이스트교회)

복음과기도미디어

구입문의 야긴과보아스 Jakin and Boaz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복음의 소리  
1670-3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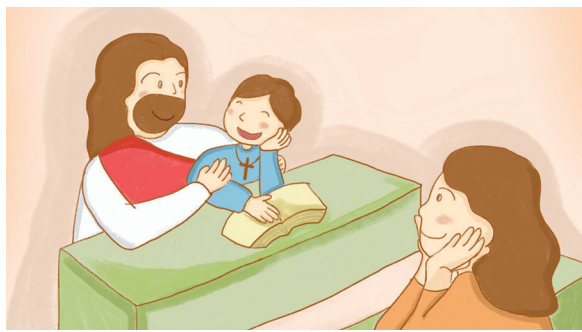
워크숍  
지상장계

# 아들의 변화는 가정에서 더 놀라웠습니다

아들은 다음세대 선교사로의 부르심을 받고 아직 어린 5학년 때 입학하여 9년 만에 졸업을 하였습니다. 아들의 지난날들을 생각하니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러나 아들의 학교 생활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졸업하고 단기선교사로 멋지게 부르신 곳으로 떠나는데, 아들은 유급을 받아 다시 12학년을 다녀야 했습니다. 유급이라는 정계를 받고 가정학습을 하게 되며 처음 들었던 생각은 '학교 다닐 때도 잘 못했는데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걱정도 있었고,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하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아이가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는 일은 정말 괴로웠고 비참했습니다.

하루는 남편에게, 가서 크게 혼 좀 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건희가 오늘 아침 묵상하다가, 오늘 밤에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오늘 밤이 아니더라도 내일 밤이면, 한 달 뒤면, 아니 일 년 뒤에



일러스트=고은선

주님을 만난다면요. 제일 쉬운 방법은 억박지르고 혼내는 일이겠지만 건희가 언젠가 주님 만날 날을 생각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기다립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혼자 외롭게 견뎌야 했던 아들의 방에 자주 들어가 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며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저와 크게 다투고 가출을 했습니다. 피가 마르는 것 같은 그 밤을 보내면서 제게 두 가지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고를 쳤다고 연락이 오면 어떡하지.' 또 하나는 '사고를 당했다면 어떡하지.'였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님만 부르며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은진아, 네

가 두려워하는 그 일이 지금 일어나다고 해도 넌 날 믿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하면 금방이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주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네가 두려워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다고 해도 내가 그 아이의 아버지이고 구원자인 것을 정말 신뢰하니?"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결단해야 했습니다. "네, 주님. 아무리 아들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해도 더욱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러나 건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해도 건희를 부르셨고 건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구원해 내시는 분이 건희의 참 아버지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그 새벽에 저의 고백을 받아내셨고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주님은 건희를 복음사관학교의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고, 그곳에서 건희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건희의 변화는 가정에서 더 놀라웠습니다. 늘 무시만 했던 동생에게는 매너 있는 오빠가 되어주었고, 부모에게 먼저 다가와 자신을 만나주신 주님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 한구석에 위룸(기도의 방)을 만들어 무릎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은 물론 밖에서 택시를 탈 때도 기사님께 복음을 전하고, 버스를 탈 때도 터미널 한복판에서 복음을 외치며, 사랑하는 주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선교사로 순종하는 아들을 보내고 박수만 치는 어머니가 아니라 선교완성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열방을 달리는 어머니가 돼야겠습니다. 소망 없는 우리에게 완전한 소망이 되어주시고 완전한 복음 되어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GNPNEWS]

강은진

이 코너는 GPM(복음과기도미디어)이 운영하는 복음의 소리 316 전화(1670-3160)가 진행한 '신앙 상담 시에 알아 두면 도움이 되는 정신의학' 주제로 열린 상담자 세미나(강사 권서영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 “내가 재림 예수다” 조현병 증상일 수 있어

+ 신앙 상담 시 도움이 되는 정신의학 (11)

조현병의 한 사례를 소개하려 한다. 신학 대학원에 다니는 20대 남성이 기숙사에서 옆방 사람들이 도청 장치를 통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항의를 했다. 그러다가 밤에 혼자서 누구와 얘기하듯이 알아듣기 힘든 혼잣말을 시작한다. 이후 과제를 들고 교수를 찾아가 이해할 수 없는 비난이나 헐박을 하기도 한다. 본인이 평상시에 해오던 위생 관리나 청소 등 일상생활에 관심이 없어지고 지저분한 모습을 보인다. 점점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혼자 방 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 그의 동기들은 그가 귀신 들렸다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점차 상태는 나빠졌다. 예배 시간에 갑자기 일어나서 “내가 재림 예수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등 엉뚱한 말과 행동이 심해졌다.

보통의 경우 신학대 학생이 갑자기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을 할 때,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이 학생은 약물 치료를 받고 이런 증상이 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 모습과 다른 말과 행동, 인격, 생활습관 등을 보일 때 정신의학적인 문제를 배제하면 안 된다.

망상과 환청의 경우 본인이 갖고 있는 문화적 배경과 관련된 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사람의 경우, 신학 대학원생이었기 때문에 평상시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해 묵상을 많이 해왔고 그런 배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생각과 환청이 들릴 때 자신이 재림 예수라는 식으로 해석해서 이해를 하게 될 수도 있고 환청 내용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들리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영적인 내용을 담은 엉뚱한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영적 문제가 아닌, 정신의학 적 증상일 수 있음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계속>

[GNPNEWS]

## 부흥을 위하여

# 탈북 여성 “수형자 시신 위에 농작물... 끔찍했다”



▲ 북 교화소의 수형자들. 출처: 유튜브 채널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캡처

한반도의 복음통일과 부흥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 주민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읽고 이 땅을 위해 기도를 요청한다. <편집자>

북한 교화소에서 수형자들의 시신 위에 농작물을 심는 등, 인권유린이 처참한 상황으로 치닫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제67차 유엔 여성지위위

회(CSW) 부대행사 자리에서 탈북 여성 지한나 씨는 “교화소 직원들이 매일 죽어 나가는 수형자들의 시신을 웅덩이에 묻어 놓고 그 위에 농작물을 심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다.”며 “(이렇게 하면) 농사가 잘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 밝혔다. 또 다른 탈북 여성 이하은 씨는 한국에 사는 탈북민의 부탁으로 북한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주려다 보위부에

걸려 양강도의 한 집결소에 수감돼 감방 안에서 10시간 동안 말도 못하고 무릎에 두 손을 얹고 앉아 있어야 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가부장적

사회와 가정폭력 등을 고발한 서른 살 탈북 여성 한송미 씨는 “탈북하다가 잡히면 남은 가족들이 고초를 당해서 잡히면 자살하기로 결심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행사를 주최한 북한 인권 운동가 수잔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인권 이슈가 북한 문제의 전면에 등장해야 한다. 그것이

이 잔혹한 독재를 끝내는 열쇠”라면서 “인권이 바로 김정일 독재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북한 인권침해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GNPNEWS]

## “식량 해결해 달라” 호소 주민... 당위원회, 매몰차게 쫓아

최근 북한 함경남도 단천시에서 극심한 생활고로 식량 문제 해결 요청을 위해 당위원회를 찾아가던 한 주민이 매몰차게 쫓겨났다고 최근 데일리NK가 전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50대 여성 김모 씨는 갈수록 형편이 어려워지고, 근래 들어서 쌀을 살 형편도 안 돼 자식들을 굶기는 상황이 되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당을

찾았지만, 매몰찬 대우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민들 사이에 원성이 터져 나왔다.

이에 매체 소식통은 “요즘 같은 세월에는 부자가 아니어서는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 부모들이 자식들을 잘 입히지도 못하는데 배까지 굶게 한다는 아픔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면서 “빠빠지게 노력해도 생활은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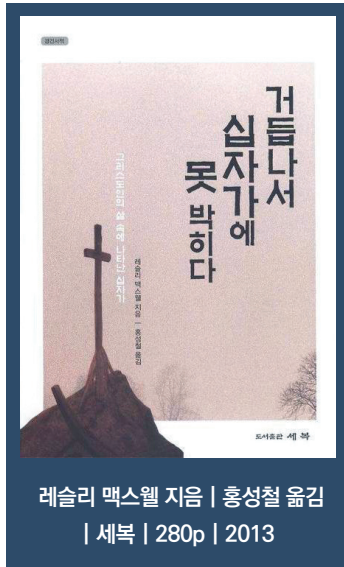
어려워져 굶어 죽기 직전이니 자식 가진 부모들은 먹거리를 구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에서는 자식을 많이 낳으라는 말만 귀 맛 좋게 늘어놓고는 정작 낳으면 나 몰라라 외면하고 있다.”면서 “요즘은 길가에서 생활난에 꽃제비로 전락한 주민들이 굶주림에 허덕이는 모습을 적

잖게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모르는 체하니 더 말해서 뭐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북한에서는 김 씨 가정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식량난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어려움이 극에 달해 당에 도움을 호소하는데도 오히려 사상 정신적으로만 걸고 드니 주민들의 비난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GNPNEWS]

뷰즈 인 북스  
Views in Books

레슬리 맥스웰 <거듭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다>

## 삶의 모든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레슬리 맥스웰 지음 | 홍성철 옮김  
| 세복 | 280p | 2013

10살 된 딸아이가 책의 제목에 대해 물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왜 거듭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거듭나는 게 맞아. 그렇지만 십자가는 거듭나서도 계속 필요하단다.”

딸아이의 질문이 이 책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세상과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여기는 믿음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진리가 맞다. 그러나 매일 믿음으로 십자가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상관없이 자아대로, 세상과 죄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일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은 거듭났다면 더욱 십자가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옛 자아가 죽음을 여기며, 그 진리에 믿음을 드러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길 촉구하고 있다.

### 매일 믿음으로 십자가에 참여하는 삶

먼저 책에 나오는 표현들을 옮기며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는지 진단하며 주님의 초대 앞에 서고 싶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과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으며, 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그들 안에 거하시려면 그들이 매일 경험에서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도 잊는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칼

날이 당신을 자아와 죄로 묶어놓고 있는 모든 연결 고리를 단계적으로 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부요(wealth), 건강 및 친구들이 칼날 앞에서 쓰러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내적 조직이 산산조각 깨어질 수 있다.”

나 또한 그랬다. 복음을 만나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이후 나는 십자가가 평생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날마다 치열하게 십자가에 서지 않을 때도 있었다. 당장에 눈 앞에 펼쳐진 일들을 처리하느라고 바쁠 때 주님의 교제는 뒷전이 되고 형식적일 때가 있었다. 또 일상이 평안하게 진행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더욱 십자가를 내 삶에 적용하지 않고 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는 나를 주님 앞에 서게 했다. 양과 껌처럼 벗겨도 벗겨도 껌질이 벗겨지듯 ‘나’라는 존재는 알면 알수록 더 끔찍한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칼날을 만나게 되면 십자가의 주님과 만나게 된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하신다.

“  
예수님의 죽음을  
항상 짊어지고 사는 것이  
타락하고 끔찍한 죄인인  
내게 얼마나 소망이며  
이것만이  
예수님의 생명대로  
사는 길이라  
기뻐다  
”

이 책을 읽으며 십자가에 참여하는 삶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 음의 말씀이 마음에 울림이 되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 에 짊어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후 4:10) 예수님의 죽음을 향

상 짊어지고 사는 것이 타락하고 끔찍한 죄인인 내게 얼마나 소망이며 이것만이 예수님의 생명대로 사는 길이라는 것이 기뻐다.

이 책은 마지막에 예수님과 같은 순교자로 우리를 초대한다. 해방되었고, 구속되었으며, 피로 사신 바 된 자들을 향해 세상과 육신과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의 본성과 자아를 십자가로 가져가라고 촉구하며 순교자들처럼 당당하고 행복하고 심지어 무모하기도 한 십자가로 나아가자고 권면한다.

이 책을 덮으며 십자가의 삶을 살아보라고 평가하시고 구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십자가만이 전부가 되도록 우리를 미련하고 약하며 천하고 멸시받으며 없는 자인 것을 알도록 이끄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임을 깨달으며, 그 은혜를 찬송하며 더욱 십자가만이 평생에 소망임을 고백하게 된다. [GNPNEWS] 김은영 선교사



### 선교 통신

## “우리나라 아이들을 섬겨줘서 고마워요”

얼마 전 파키스탄 카라치시에 있는 자동차 공장과 스마트폰 공장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시골 소작농 가정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쉽사리 경험할 수 없는 자동차와 스마트폰을 보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다양한 생각과 배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견학을 하는 도중 한 여자 직원이 우리 선교사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일을 하면 월급을 받으나요? 당신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이 시골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교육을 하려는 건가요?” 그때 “우리는 크리스천 선교사이고, 파키스탄에 예수의 증인을 세우고 싶어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었으면 하는 꿈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여직원은 “내가 듣고 싶었던 대답이 바로 그거였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공장에서는 많은 무슬림 직원들이 우리에게 ‘왜 굳이 그 시골에 갔는가? 왜 이 일을 하는가?’ 등의 많은 질문들을 던졌고, 우리

의 대답을 들은 후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이곳에 와서 우리나라 아이들을 섬겨줘서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수학여행 중 우연히 들렀던 식당에서도 선교사들이 아이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당신들이 하고 있다. 우리나라 아이들을 섬겨줘서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땅의 영혼들의 그러한 말들이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시간을 위로해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홍수로 인해 키프로 마을 사람들은 피폐해졌고, 마을 안에서는 크고 작은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호스텔의 선교사들과 아이들은 계속해서 마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2학년 바르칸이 “우리가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예배하고 복음을 전해도 될까요?”라고 물었습니다. 저희는 그 어느 때보다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저희 호스텔의 약속의 말씀은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계 5:10)입니다. 마을 사람들



▲ 파키스탄 키프로 호스텔 아이들. © 복음기도신문

을 위해 기도하던 중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고 순종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 같았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자신이 만난 하나님,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다음 날, 호스텔의 책임자로 있는 한 스텝은 매일 아침에 드리는 예배에서 선교사 대신 설교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설교 이후 기쁨으

로 충만해진 그가 찾아와 “나에게 너무 필요한 시간이었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룹별로 나누어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며 스스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마을의 교회가 주님의 진리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며 견고한 교회로 살아나도록 기도해주세요. [GNPNEWS]

파키스탄 키프로=백우현 선교사

####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 후원자 명단

2023. 3. 1 ~ 3. 22 (가나다 순)

#### 개인

권정숙 권혜령 김경선 김광희 김선례 김선희 김수미 김신애 김옥주 김준순 김형숙 박경희 박성규 박신희 박춘희 신혜경 안민자 안수경 양애숙 오경선 오세주 유영권 이보희 이상현 이상현 이영옥 이은주 이장원 이진희 이춘자 이항구 장근혜 정금자 정옥영 정호진 조형광 존/정희 차인순 최근희 최임주 최점옥 하은숙 황일문 무명

#### 교회 및 단체

겨자씨선교회 고현교회 광주정성교회 나죽고예수사는교회 문광교회 반석중앙교회 복음가득한교회 빛과함께하는교회 새순교회 열매교회 참총앗대교회 함안순복음교회 험시바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8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장용호(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